

1. 호서대학교의 벤처 역사와 비전

1. 벤처가 필요한 이유

호서대학교는 “벤처”(venture)란 용어가 일반인들에게까지 보편화되기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는데, 미국과 독일과 이스라엘 등, 세계 경제를 이끄는 국가들의 발전 원동력이 바로 기술개발과 벤처기업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호서대학교는 대학의 연구역량을 집중하여 일궈낸 기술개발을 벤처기업으로 구체화시키려는 뜻을 품기 시작했으며, 21세기 디지털 산업의 변화에 대처하는 고급 인력자원을 배출하여 한국경제의 미래에 일조하려고 다짐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민국과 호서대학교의 미래가 벤처에 있다고 확신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활용한 부가적 가치를 만들어야 우리가 더 번영할 수 있고, 대학이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사명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학교가 벤처를 선택했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더 강력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2. 호서의 벤처정신과 벤처사업

호서대학교 설립자 故 강석규 박사는 전기공학을 전공한 공학도로서 공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개발과 실용화에 대한 투철한 교육관으로 1978년에 호서대학교를 설립했다. 한 나라의 발전은 기술력과 벤처기업에 달려 있으며, 기술력은 연구력에서 나오고 연구력은 고급인력과 기술자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신념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호서대학교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영향을 받은 호서대학교 설립자 고 강석규 박사의 실사구시 교육관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교훈에서 명료화되었다. 따라서 기독교정신과 벤처정신은 한 마디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모험적 도전정신”이며, 새로운 “길을 만드는 대학”이라는 표어로 정착되었으니, 벤처정신은 기독교정신의 실용화 개념이며,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형태가 바로 벤처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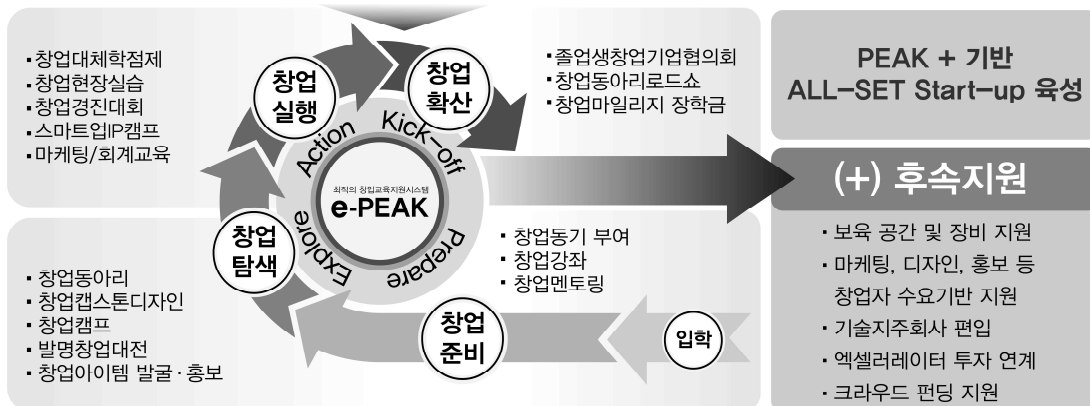
강석규 명예총장의 지도력 아래 호서대학교는 대학발전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지역발전의 주체로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기술력향상을 지원하고자 노력해왔다. 그 일환으로 1989년에 <대학발전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천안캠퍼스에서 아산캠퍼스로 확장하여 이전했고, 천안-아산지역의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천안캠퍼스를 기술센터(Technology Center)로 구축해나갔다. 특히 공학교수들로 하여금 기업체에 주기적으로 방문하게 하여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토록 하는 등 산학협동을 강력히 추진해나갔다. 결국 지방정부도 이에 자극을 받아 산학협동과 클러스터의 중요성을 갖게 되었고, 본교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테크노파크(Techno Park)를 설립하는 등 벤처정신과 벤처사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3. 정부정책의 변화주도

우리 경제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에 이른바 “요소투입형 경제성장”의 한계에 봉착했다. 이 시기부터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기술혁신을 위한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대학중심의 산학협력이 추진되어 산업계의 직접적 수요보다는 연구자나 대학의 필요에 따라 연구개발이 주류였다. 정부의 관심도 그 범주에서 맴돌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의 연구 성과를 산업화시키거나 사업화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많았다. 그러나 호서대학교는 기술혁신을 이루는 중소기업들과 기술력을 가진 창업자들을 발굴하여 학내에 TBI(Technology Business Incubator, 기술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였는데, 이것은 전국 최초였으며, 이로 인해 호서대학교는 벤처기업 육성의 태두가 되었다. 따라서 정부가 범국가적으로 실시한 <BK 21, 두뇌한국 21사업>에서 지방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벤처전문대학원을 인가받았으며, 벤처기업 인력양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4. 호서대학교 고유의 창업지원체계 PEAK+

현재 강일구 총장의 지도력 아래 벤처정신과 벤처사업의 중심지 호서대학교는 재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이론을 습득하는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창업역량을 강화시키고,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대학본부(창업교육센터)와 창업지원단을 중심으로 단계별 맞춤형 창업 지원체계(PEAK+)를 운영한다. PEAK+는 Prepare(창업준비) → Explore(창업탐색) → Action(창업실행) → Kick-Off(창업확산) → +(후속지원) 단계로 구성된 창업지원 체계로서 예비창업자들이 성공적으로 창업하도록 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5. 벤처정신 함양 교육

호서대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호서대학교의 벤처정신(“할 수 있다, 하면 된다”)을 교육하는 필수교양과목을 수강해야하며, 내재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타 창업교육들은 주로 이론중심이어서 벤처정신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발휘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호서대학교는 그런 방식을 탈피하여 학생들에게 벤처정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동기부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에 집중한다. 특히 “벤처와 창업가 정신” 과목은 멘토링 수업과 연계한 핵심역량 강화활동 형태로써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창안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수업을 통해서 벤처정신의 함양과 더불어 개인의 창의 역량과 협업 역량의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발굴된 우수한 아이디어는 지도교수의 멘토링을 통해 실제 창업에 이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벤처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6.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의 운영

호서대학교는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와 창업의지를 보유한 재학생들이 창업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부담을 경감해주며, 창업 준비 및 창업 이후의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에는 창업실습과 창업현장실습이 있으며, 이는 각각 창업 준비활동 및 창업 이후 경영활동을 학점을 인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본인의 창업관련 활동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재학생들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통해 재학 중에도 창업에 도전하는 벤처정신을 적극적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되어 있다.